『日本書紀』에 보이는 백제 한자음 연구*

—그 자료성과 음운체계를 중심으로—

金正彬**

요 약

일본서기에는 고대한국어 자료가 인용되어있다. 이것은 한일 간의 대표적인 학자에 의해 공인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취사선택에 의한 일부 음운에 한해서이다. 따라서 일본서기에 보이는 고대한국어를 연구 자료로서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자료성을 먼저 알아봐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일본서기에 보이는 고대한국어, 특히 백제어를 중심으로 그 차용한자음의 음운적 자료성과 당시의 음운체계를 알아본 것이다. 그 관점으로는 먼저 α群과 β群으로 설명되는 일본어 음운사와 중고 한어사를 배경으로 했다.

그 결과 일본서기에 보이는 고대백제어, 특히 차용한자음은 α群과 β群, 성모와 운모를 막론하고 백제시대 이후의 일본서기 편찬자의 음운의식이 가미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그 선별작업을 해야 할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음운의 그 체계는 현대한국의 음운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다루었다.

이와 같은 고대한국어의 차용한자음은 역사적으로 일본오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동시에 그것은 고대한국어 자료가 일본에 존재한다는 의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 2006-353-A00096).

** 한남대학교 연구교수.

미가 될 것이다.

* 핵심어 : 일본서기, 백제한자음, 일본어사, 한어사, 음운자료성, 음운체계, 일본오음

1. 들어가기

日本最古의 正史이며 漢文으로 기록된 編年体『日本書紀』(720)에는, 古代百濟語가 적지 않게 存在하고 있다. 그 史料的, 音韻史的 가치에 대하여 일찍이 木下礼二(1961), 藤井茂利(1969, 1975, 1976, 1980) 등에 의해 자세하게 다루어진 적이 있다. 이러한 것은 이하와 같은 견해에서도 확인된다.

「『日本書紀』 編纂時에 參照한 外國文獻의 記載나, 外交文書 등에 있던 그대로 적은 것으로 생각되므로 當時의 半島의 文字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馬渕和夫 1960: 12)

「(前略)…단순한 書記本文에 대한 參考史料로서 引用됨에 머물지 않고 書記의 本文 그 자체가 이들이 逸史의 文을 거의 그대로 採錄했다고 생각되는 것이며…(後略)」 (坂本太郎 外 1967: 618)

이대로라면 日本書紀에 引用되어 있는 百濟史料는 4-6世紀의 것이므로, 唐代 以前의 상당히 오래된 백제어의 음운이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日本語學界의 통설로 有坂秀世(1955: 193), 満田新造(1964: 606-632) 등과, 한국 측의 都守熙(1989)[1], 李炳勳(2003), 水野俊平(2003)[2]등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서기의 고대 백제어는 森博達(1977)의 α群(卷14-卷19, 卷24-卷27)에 집중적으로 보이며, 이하와 같은 사료적인 배경에 의해 확인된다.

『百濟記』(百濟王代에 의하면 346~475)
→卷第九의 神功四十七年紀(367)~卷第十四의 雄略二十年紀(476)
『百濟新撰』(455~523)
→卷第十四의 雄略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百濟本記』(501~557)
→卷第十七의 繼体三年紀(509)~卷第十九의 欽明十七年紀(556)

그러므로 古態의 음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上揭資料에 의한 백제한자음[3]은 唐代北方音에 의한 中國原音說의 α群과 음운론적으로 맞지 않는 곳이 생길 수 있으며, 또한 어떠한 형태로든 α群 편찬자의 음운의식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서기에 보이는 백제한자음의 음운체계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과 함께, 당시의 編纂者에게 어떠한 음운의식이 內在해 있을까 등의 관점으로 구체적인 精査를 행하여 그 음운 자료성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수순에 따라 자료성이 인정되는 고대 백제어의 음운을 구체화하여 정리하는 것은, 고대 한일 간의 실제언어생활에 다루어졌던 고대 음운의 실상을 알기에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 또한 현대 한국한자음의 역사론에 참고가 될 것이다.

本稿에서 다루는 백제한자음 자료는 交合本 『日本書紀』(岩波書店

1) 도수희(1989: 259)를 참조.
2) 權仁瀚 敎授로부터 多數의 關連資料를 提供받았다.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릴 따름이다.
3) 모두 假名에 의한 차자표기로 일부는 고대 백제史料와 일치한다. 도수희(1989: 376) 참조. 이하, 편의상 백제한자음이라 통칭한다.

1967)에 보이는 백제어를 主對象으로 하나, 그 底本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로 미룬다.

2. 日本書紀에 보이는 百濟語의 분포

일본서기에 보이는 百濟語를 음운자료로 삼을 때에는 그 정확성이 문제가 될 것이다. 本稿에서 다루는 古代 백제한자음은 交合本『日本書紀』의 본문에「百濟の人云々…」, 혹은「百濟の王云々…」등으로서「百濟…」와 직접 관계가 있는 곳만을 채용하는 단순한 수순을 취했다. 이하 管見에 의해 交合本『日本書紀』의 初出字만을 채용(反復語는 생략)하여 森博達(1977)의 α·β群說에 따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表一>

	卷數	人名	王名	地名	官職名	기타	計
β群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4	4	8			16
	十	4	3	6			13
	十一					1	1
	十二						
	十三						
α群	十四	4	8	2			14
	十五	3					3
	十六	4					4
	十七	11	1	2	1		15
	十八	2			2		4
	十九	64	4	5	14		88

	二十	5			2		7
	二十一	22			2		24
β群	二十二	4					4
	二十三	4	1				5
α群	二十四	8					8
	二十五	2			1		3
	二十六	16		1	3		20
	二十七	26	1	3			30
β群	二十八						
	二十九	6	2				8
α群	三十	4	1			1	6
	計	193	25	27	25	2	總 272語

上表「기타」의 卷十一에 보이는 一例는 새 이름(鷹)[4]이며, 卷三十의 一例는 官職名+人名으로 생각되는 것이나 분명하지 않다[5]. 「人名」은 개별어수 193語(70.6%)로 다른 王名(9.2%), 地名(9.9%), 官職名(9.2%)에 비해 많다. 모두 음운자료로서 유효할 것이다.

β群에 속하는 백제어는 개별어수 47로 전체의 17.2%에 지나지 않으나, α群에는 개별어수 225로서 전체의 82.7%나 차지하고 있다. 이것으로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시의 α群 표기자가 가지고 있던 唐代 北方의 字音意識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다.

3. 聲母

森博達가 α·β群의 근거로 삼은 唐代北方音의 聲母에는 경순음, 설상음의 구분의식과 淸音假名와 か行에 있어서 각각 次淸音字와 喉音字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것, 全濁音字의 淸音化와 次濁音字의 혼란 등

4) 卷第11, 仁德 43年 9月條에 백제 속어로 매(鷹)를 의미한다는 記事(俱知クチ)가 보인다.

5) 卷第30, 持統 2年 5月條에 「百濟の敬須德那利(キャウストクナリ)...」가 보인다.

의 특징이 있다. 이러한 한어사에 의한 몇 가지 특징으로 『日本書紀』의 백제한자음을 보면 상대적으로 그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며 본고에서 의도하는 당시의 백제음운의 실상을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3.1. 輕脣音

森博達의 脣音字 資料(1991: 113)에는 重·輕脣音에 의해 <表二>와 같은 분포가 보인다.

<表二>

ハ行	β群	α群
重脣音	269 (99.1%)	172 (86.7%)
輕脣音	26 (0.9%)	32 (13.3%)

α·β群을 막론하고 重脣音字 중심의 ハ行假名表記가 보인다. 輕脣音字는 대부분 「フ」假名로 다루어졌으며, 이것은 β群에서 24例(92.3%), α群에서 30例(93.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表三>과 같이 濁音에서도 나타나며 鼻音字를 제외하고 보면 輕脣音字는 β群 1例 외에 나머지는 모두 「フ」假名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表三>

ハ行	β群	α群
重脣音	15(83.3%)	9(81.8%)
輕脣音	3(16.7%)	2(18.2%)

이러한 관점으로 일본서기에 보이는 百濟漢字音의 脣音字를 표기한 假名를 보면, <表四>와 같다. ( )는 延字數이며 이하 같다.

<表四>

β群					ハ行	α群				
ハ	ヒ	フ	ヘ	ホ	中古	ハ	ヒ	フ	ヘ	ホ
1(1)				1(1)	幇	2(2)			1(1)	2(2)
					滂	1(1)				
	1(1)				並	1(1)	1(4)			2(9)
				1(1)	非	1(1)	1(1)	3(11)		2(2)
				1(1)	敷					1(2)
					奉		1(1)		1(3)	

<表五>

β群					バ行	α群				
バ	ビ	ブ	ベ	ボ	中古	バ	ビ	ブ	ベ	ボ
					幇					
					滂					
					並		2(2)		1(1)	1(1)
					非			2(4)		
					敷			1(1)		
					奉			1(1)	1(1)	

<表五>의 경우에는 ブ假名에 집중되어 보이므로 경순음적 특징이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通攝東韻敷母「豊ブ」
遇攝虞韻非母「夫ブ」
敷母「父ブ」
臻攝文韻非母「分ブン」

의 4例이다. 그러나 「豊ブ」는 淸音 「ホウ」와 竝存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일본오음, 한음에서 대부분 淸音字 フ, フン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경순음을 (탁음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백제어의 음운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므로, 당연히 경순음적 관점에서는 벗어나는 것이다.

以上의 唐代字音相과 맞지 않는 음운현상을 무시하고 보면, <表四>의 ハ行假名로 표기된 백제한자음은 <表六>과 같이 α·β群을 막론하고 重脣音과 輕脣音과의 구별이 되지 않는 분포가 보인다. 또 輕脣音字의 假名表記는 「フ」뿐만 아니라 全域에 걸쳐있다.

<表六>

百濟假名 / 脣音	ハ行		バ行	
	β群	α群	β群	α群
重脣音	3(3)	10(20)		4(4)
輕脣音	2(2)	10(21)		5(7)

이것은 α·β群에 보이는 重脣音字 중심의 ハ·バ行 假名表記와, 대부분 「フ」 假名表記로 나타나는 輕脣音字의 경향과는 다르다. 즉 당시의 백제한자음의 脣音은 重·輕脣音字 無辨別의 음운체계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략적으로 α·β群의 표기의식과는 차이가 난다.[6]

3.2. 舌上音

森博達에 의하면 α群에서는 假名 「チ」에 舌上音인 知母와 澄母만이 나타나고, 다른 タ行에는 舌頭音 端母와 定母만이 나타난다(森博達 1991: 119). 이것은 당시에 존재했던 설두, 설상음의 분별의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절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일본오음과 경전석문에서도 역사적으로 같은 분별의식[7]이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イ列甲乙을 무시하고 백제한자음을 보겠다.

6) 이러한 견해는 柳玫和(2003: 115)에서도 통한다.
7) 김정빈(2007: 53-75) 참조.

<表七>

β群					舌音	α群				
タ	チ	ツ	テ	ト	中古	タ	チ	ツ	テ	ト
1(1)		1(1)		2(2)	端	4(8)	4(5)	1(2)	1(1)	6(31)
	3(3)		1(1)		知		6(8)			
					透			1(1)	1(1)	
					徹					
					定					
1(1)	1(1)			1(1)	澄	1(3)	1(1)			1(1)

<表八>

β群					舌音	α群				
ダ	ヂ	ヅ	デ	ド	中古	ダ	ヂ	ヅ	デ	ド
					端					
					知					
					透	3(4)				
					徹					
1(2)					定	6(15)				2(2)
					澄		1(1)			

イ列假名는 知母, 澄母에 한하여 보인다는 α群의 특질은 백제한자음에서는 β群에도 존재하며, α群의 端母에도 イ列假名가 36.4%(35.7%)로서 나타난다.[8]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梗攝青韻端母(舌頭音) 「丁チャウ」(144, 151)
「頂チャウ」(254)
「適チャク」(33, 45)
「嫡チャク」(67)

특히 「丁チャウ」와 같은 音은 神護景雲 2年(768) 御願經의 一種인 『聖語藏本央掘魔羅經』에 仏典獨唱吳音의 俗音[9]으로서 출현하는 것이

8) 이것은 當時의 音韻, 혹은 編纂者의 音韻意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9) 春日政治의 說. 沼本克明(1986: 110-115).

다. 이들은 설두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テイ」「テキ」의 音相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중기조선자료에 이들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梗攝靑韻端母(舌頭音) 「丁 뎡」(書經, 詩經, 小學, 訓蒙 등)
「頂 뎡」(易經, 訓蒙, 類合 등)
「適 뎍」(三韻, 奎章, 華東 등)
「嫡 뎍」(訓蒙, 類合 등)

즉, α群 端母에 보이는 이들의 音象은, 別個의 音韻意識을 가진 표기자의 영향일 것이다.

또 イ列 以外에서는 端母, 定母만이 다루어졌다는 α群의 특질은 α群의 百濟漢字音에서는 イ列 以外의 假名를 나타내기 위해 透母, 澄母도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마땅히 イ列假名를 나타내야 하는 舌上音 知母 「氐」는 「テイ」로 보이고 있다. 이것은 백제한자음을 구성하고 있는 百濟 音韻體系에 舌頭·舌上音은 辨別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3.3. 喉音

α群의 カ行假名에는 牙音字만을 다루고 喉音字는 一切 다루지 않았다(森博達 1991: 15, 121)는 唐代 以後의 음운특질이 있다. カ行假名에 牙音·喉音字를 混用하는 곳은 당연히 六朝期의 音相을 가진 β群으로 위치한다.

일본서기의 백제한자음을 표기하는 カ行假名에는 이하와 같은 분포가 존재한다.

<表九>

百濟漢字音 カ行假名	牙音			喉音		計
	見母	溪母	群母	曉母	匣母	
β群	11(14)	2(2)	2(5)	3(3)	3(3)	21(27)
α群	25(69)		3(3)	5(6)	3(3)	36(81)
計	36(83)	2(2)	5(8)	8(9)	6(6)	57(108)

즉 α群 백제한자음의 カ行假名를 표기하기 위해 牙音字, 喉音字를 併用했으며, 이러한 점에서 森博達의 β群과 통한다. 喉音字의 カ行假名 표기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止攝曉母　輝クヰ(263)
遇攝匣母　護コ(83)
　　許コ(106,256)
蟹攝匣母　奚ケイ(6)
　　惠クヱイ(158)
臻攝曉母　欣コン(190)
(이하 생략)

이러한 것은 분명히 당대 이전의 β群의 성격이다. 그러나 α群에도 8(9)例로서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의 백제어의 古態音韻을 남기고 있다는 것으로 상당히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된다.

3.4. 次淸音

唐代를 중심으로 하는 中古音 體制의 次淸音字는 全淸音字(無聲無氣音)에 대하여 無聲有氣音으로 나타난다. 이 有氣音으로 인해 無氣音에 가까운 日本側의 淸音假名를 표기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α群 表記者는 次淸音字를 다루지 않게 되었다(森博達 1991: 18-20)[10]. 이러한 관점으로 백제한자음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表十>

百濟漢字音의 次淸音字		淸音假名		濁音假名		計
		β群	α群	β群	α群	
脣音	滂		1(1)			1(1)
	敷	1(1)	1(2)		1(1)	3(4)
舌音	透		2(2)		3(4)	5(6)
	徹					
牙音	溪直					
	溪B	1(1)				1(1)
	溪A	1(1)				1(1)
齒音	初二		2(2)			2(2)
	穿三	1(1)	2(2)			3(3)
	淸	1(1)	3(10)			4(11)
喉音	于三		5(9)			5(9)
	喩四		7(16)			7(16)
計		5(5)	23(44)		4(5)	32(54)
		87.5(90.7)%		12.5(9.3)%		

백제한자음의 次淸音字는 α群에 집중되어 있고, β群에도 경향성은 보인다. 예를 들어 「總」은 淸音字로서 「ソウ」를 나타내기에 문제없지만, 같은 「ソウ」로 나타나는 「聰」은 次淸音字에 속하는 것으로 α群의 일반적인 음운의식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그 외의 次淸音字 例는 다음과 같다.

遇攝模韻一透母　土ツ(273)
魚韻B初母　初ソ(243)
蟹攝齊韻A溪母　契ケイ(125)
臻攝諄韻B穿母　春シュン(243)

10) 즉 일본서기 편찬자에게 차청(유기)음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山攝寒韻一滂母　潘ハン(150)

(이하 생략)

이상으로 α群 음운 표기의식과는 다른 당대 이전의 백제어의 음운실상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고대 백제어에 aspirate(氣)가 있었느냐하는, 그 基底가 되는 음운체계가 문제가 된다. <表十>과 같이 淸音에 의한 假名表記(87.5%)가 뚜렷한 것으로 aspirate(氣)體系는 존재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만약 없었다면 (無聲)有氣, 無氣音의 無別과 더불어 voice(聲)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로 인해 有聲(無氣)音과 調音上의 혼란이 발생했을 것임은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 그 결과로 당연시되는 濁音假名가 上表(12.5%)보다 훨씬 늘어나 混用狀態는 가중되었을 것이다.

다만, 차청음의 발생에 있어 치음이 가장 이르고 아음에서 가장 느리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상세한 언급은 생략하고 후고로 미룬다.

3.5. 全濁音

唐代北方音의 또 하나의 특질은 全濁音의 無聲音化이다. 이 특징은 α群에 많이 보이며, 자연히 全濁音字에 淸音假名를 대량으로 표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遲速이 있으며 특히 定母에서는 가장 늦게까지 無聲音化가 나타나는 것이 α群의 特徵(森博達 1991: 47)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백제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十一>

百濟漢字音의 全濁音字		淸音假名		濁音假名		計
		β群	α群	β群	α群	
脣音	並	1(1)	4(14)	1(1)	3(3)	9(19)
	奉		2(4)		2(2)	4(6)
舌音	定			1(2)	8(17)	9(19)
	澄	3(3)	3(5)		1(1)	7(9)
牙音	群					
	群B	1(1)	2(2)		2(8)	5(11)
	群A	1(4)	1(1)			2(5)
齒音	牀二					
	神三				1(4)	1(4)
	從	1(1)	1(1)	2(3)	4(4)	8(9)
喉音	匣	2(2)	4(4)		1(4)	
計		9(12)	17(31)	4(6)	22(43)	52(92)
		50(46.7)%		50(53.3)%		

<表十一>에 보이는 백제한자음 定母의 濁音假名는 舌上音의 澄母를 포함하여 α群에 9(18)例가 보인다. 특히 定母字는 전혀 淸音化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α群의 濁音假名 전체에서도 57.1%(65.4%)로서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定母에서는 α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音像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하와 같다.

蟹攝哈韻一定母 大 ダイ(255)
齊韻A定母 提 ダイ(112)
山攝寒韻一定母 達 ダチ(124)
效攝豪韻一定母 道 ダウ(90, 146, 147, 177, 190, 262)
(이하 생략)

그러나 전체적으로 全濁音字의 백제한자음은 淸音假名 26(43)例, 濁音假名 26(49)例로서 표기되어 있어 β群의 특징이 보인다. 또 喉音匣母字가 カ行 濁音假名로서 표기된 것은 1(4)例이나, カ行 淸音假名는 6(6)例로서 이 현상은 脣音·牙音에도 통한다. 구체적인 喉音匣母字의

カ(ガ)行 표기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蟹攝佳韻二匣母 解 ゲ(45, 46, 47, 229)
齊韻A匣母 奚 ケイ(6)
遇攝模韻一匣母 護 コ(83)
齊韻A匣母 惠 クエイ(158)
山攝寒韻一匣母 韓 カン(20)
仙韻四匣母 峴 ケン(18)
假攝麻韻二匣母 下 カ(69)

이것은 舌·齒音의 濁音中心인 假名表記와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다. 脣·牙·喉音과 舌·齒音은 重紐의 유무에 의해 구별되는 것이나, 上表의 舌·齒音字 濁音假名는 澄母(舌上音) 1例, 神母三(正齒音) 1例를 제외하고 모두 舌頭·齒頭音으로 되어 있다. 즉 舌上·正齒音의 摩擦音的 調音현상보다도 파열음에서 오히려 無氣音이 강조되어 濁音으로 들렸을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일본어에 濁音이 있었다는 논리에는 합당하지만, 반대로 백제어에 濁音이 있었다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은 上表와 같이 백제한자음의 舌·齒音에 淸音假名가 적고, 脣·牙·喉音의 淸音假名가 다수 출현하는 것으로 입증된다. 보편적인 한어사의 음운변천은 원래 舌·齒音字가 가장 빠르고 牙·喉音字는 가장 늦게 나타난다.[11] 이와 같은 사실은 平安時代 이후의 일본오음자료에도 확인된다. 그러므로 <表十一>과 같은 音像은 보편적인 한어사의 음운변천과는 전혀 다른 백제한자음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대백제어에 濁音이 없었던 까닭에 그로 말미암은 淸濁의 混用이 일본서기의 표기자에게 있었다는 것이 想定된다.

11) 大野晋(1972: 181) 참조.

만약 백제한자음의 음운체계에 원래 濁音이 있었다면 唐代北方音의 특질인 全濁音의 無聲音化와 α群 표기자의 음운의식에 의해 변천이 빠른 舌·齒音字의 淸音假名表記는 <表十一>보다는 훨씬 증가했을 것이고, 변천이 느린 牙·喉音字에서는 당연히 淸音이 아닌 濁音이 많이 남아야 할 것이다. 또한 全濁無聲音化가 없었다면 더욱 더 濁音을 보전했을 것이고, 脣·牙·喉音의 淸音假名는 舌·齒音보다 눈에 띄는 현상은 없을 것이다.

또한 匣母字 가운데 아래와 같은 예가 존재한다.

蟹攝齊合A匣母　惠 ヱ(166, 168, 175, 176, 191)
　　慧 ヱ(145)

이러한 것은 平安時代 이후의 日本吳音資料[12]에도 다수 보인다. 그러나 匣母濁音字가 カ(ガ)行假名로 수용한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遇攝模韻一合匣母　瑚乎戶護互コ·ゴ(法華經音義<天理本甲><大東急本甲> 등)
蟹攝皆韻二合匣母　潰クワイ、懷エ·クワイ(安田八幡宮藏大般若波羅密多經)
二開匣母　骸駭ガイ　〃
臻攝痕韻一開匣母　痕コン　〃
山攝山韻二合匣母　幻ゲン　〃
山攝先韻四合匣母　懸 クエン·グエン　〃
梗攝耕韻合二匣母　獲ギヤク·クイヤク·キヤク(法華經音訓<永祿本>法

12) 『安田八幡宮藏 大般若波羅密多經』, 『法華經釋文』, 『法華經音義』 등.

華經音義<天理本甲>)

青韻合四匣母 迥クイヤウ·キヤウ·クワイ(法華經音義<大東急本甲>)

(이하, 생략)

이것은 等呼를 막론하고 中古音 ɦ에 대하여 カ行淸濁의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ゴ로 표기한 것은 中古音 ɦ와는 관계없는, (ɦ^{w}>)w의 음형으로 수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백제한자음의 ゴ音形은 淸濁意識에서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3.6. 次濁音

唐代北方音에서는 全濁音의 無聲音化와 더불어 鼻音의 非鼻音(濁音)化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나 일본서기에서는 混用 상태이다(森博達 1991: 49). 이러한 관점에서 백제한자음을 살펴보겠다.

<表十二>

百濟漢字音의 次濁音字		濁音假名		マ ナ行假名		ラ行假名		計
		β群	α群	β群	α群	β群	α群	
脣音	明		1(1)	5(8)	13(37)			19(46)
	微			3(3)	11(34)			14(37)
舌音	泥			2(2)	10(31)			12(33)
	孃							
牙音	疑		1(1)					
	疑B	2(2)	4(4)					
	疑A		1(1)					
半舌音	來					6(9)	26(48)	32(57)
半齒音	日		2(2)	3(5)	4(10)			9(17)
計			3(3)	13(18)	38(112)	6(9)	26(48)	86(190)
		3.5(1.6)%		95.3(98.4)%				

牙音疑母字에 マ·ナ·ラ行假名가 없는 이유로서는 日本語史에 보이는 그 추정음 ng로 인한 ガ行 濁音假名로서 설명이 가능하다. 이것을 제외하고 中古 次濁音字의 백제한자음이 濁音假名로 표기된 것은 아래의 3例뿐이다.

脣音「馬バ(麻二, 天智四年十一月條)」1例
半齒音「壤ジャウ(陽B, 欽明十三年十月條)」1例
「仁ジン(眞B, 天智三年五月條)」1例

이외의 나머지 96.5%(98.4%)는 모두 マ·ナ·ラ行 假名로 표기되어 있다.

森博達의 α群에는 非鼻音化 현상을 보이는 例字가 부분적으로 混用狀態로 나타나며 唐代北方音의 특질을 반영하고 있다. 이것에 대하여 中古次濁音字의 백제한자음은 鼻音을 보전하고 있다는 것이 되며, 이 점에서 일본서기의 보편적인 표기의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前節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원래 백제한자음에 濁音意識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濁音이 존재했고 그러한 음운의식이 있었다면, 중국·일본에도 있었던 한어사의 기류에 따라 非鼻音化 현상이 어떠한 형태로든 다루어졌을 것이다. 즉 古代百濟語에는 濁音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全濁音의 無聲音化는 물론 非鼻音化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일본서기에 보이는 백제한자음은 성모의 관점으로 볼 경우, 그 자료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곳곳에 α群 표기자의 음운의식에 의한 간섭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는 것도 적지 않다.

4. 韻母

일본서기에 보이는 백제한자음의 假名를 α · β群에 있어서의 上代特殊假名用法의 甲乙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그 歷史的 音韻相과 함께 α群 표기자의 음운의식이 분명해질 것이다. 백제한자음을 표기한 假名를 中古音 體制에 의해 三等甲은 A, 三等乙은 B로 간략하게 제시한다. ( ) 는 筆者의 색인에 의한 一連番號이며 「計」의 ( )는 延字數이다.

4.1. イ列甲乙

<表十三>

假名			β群	α群	計
イ列	乙	支韻B		義ギ(196)	1(1)
		微合B	味ミ(192) 貴クヰ(7)	非ヒ(108) 微ミ(272) 未ミ(179) 味ミ(172, 192, 201) 貴クヰ(38, 52, 62, 80, 82, 88, 117, 139, 143, 184, 185, 237)	7(20)
	甲	支韻B	支シ(11, 19, 21)	支シ(37)	2(4)
		支韻A	彌ミ(3, 8, 191)	彌ミ(52, 66, 78, 104, 186, 217, 245)	2(10)
		脂韻A	比ヒ(9)	比ヒ(92, 130, 244, 250) 鼻ビ(74)	3(6)
	기타	支韻B	知チ(30) 技キ(22) 爾ニ(26, 27)	皮ヒ(121) 知チ(162) 智チ(202, 231) 氏シ(123) 爾ニ(45, 46, 53, 54, 116, 160)	8(15)
		脂韻B	致チ(28) 利リ(9)	致チ(125) 尼ニ(32) 師シ(51, 173, 248) 利リ(34, 40, 53, 59, 66, 74, 222, 230, 268) 唎リ(125)	7(17)
		之韻B	之シ(192)	姬キ(123)	2(2)
		支韻A	斯シ(17)	斯シ(50, 97, 99, 125, 130, 132, 205, 209, 242)	2(10)
		脂韻A	資シ(5)	次シ(59, 97, 111, 119, 136, 154, 164)	4(11)

				自ジ(205, 221)　四シ(244)	
		微合B	輝クヰ(263)	鬼クヰ(208, 220, 242) 威ヰ(135, 174)　尉ヰ(39)	4(7)
		之韻A	子シ(194) 慈ジ(196)	子シ(141, 142, 180, 237, 250, 259, 272) 司シ(246)	4(10)
		脂合A	季キ(153)		1(1)
		眞韻B	仁ニ(23, 266)	仁ニ(213)	2(3)
計			18(23)	31(93)	49(116)

牙音キ乙, ギ乙에서는 之韻만 다루어졌다(1991: 67)는 森博達의 α群의 특질은, 上表의 백제한자음 假名의 乙類[13]에는 보이지 않는다. 또 『玄應音義』, 『玉篇』(534) 등의 切韻系 韻書에 舌·齒音下에서의 之韻은 脂韻과 合流했다고 되어 있으나, 上表의 백제한자음 「기타」에는 之韻을 비롯해 支韻, 脂韻, 微韻字도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甲類에 支韻·脂韻이 다루어져 있어 α群表記者의 特質이 보인다. 또 ヒ乙, ミ乙에 中舌·後舌의 拗介母 C類[14]의 微韻(合)字를 다루고 있어, 輕脣音과 관계가 있는 α群 표기자의 음운의식이 드러난다. 다만 支韻B의 「支」가 甲類에 속해 있어 약간 설명을 요하는데, 이것은 齒音의 摩擦音이 B類의 介母音을 약화시켜 甲類에 가깝게 들렸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4.2. エ列甲乙

<表十四>

假名		中古音	β群	α群	計
	乙	支韻B		宜ゲ(211)	1(1)
		哈韻一		開ケ(178)	1(1)

13) 여기에서 말하는 甲乙은 모두 日本上代特殊假名用法의 用語이다.

14) 拗介母의 强弱으로 설명하는 A, B에 대하여, C는 中舌, 後舌에 있으며 후에 輕唇音과 관련된다.

エ列	甲	齊韻A	奚ケイ(6)		1(1)
		侯韻一		部ベ(140)	1(1)
	기타	支韻B		施セ(93)	1(1)
		支韻A		移エ(99)	1(1)
		脂韻B		稽ケイ(33)	1(1)
		佳韻二		解ゲ(45, 46, 47, 229)	1(4)
		祭韻B		勢セ(106)	1(1)
		齊韻A	齊セ(29) 礼レ(8)	契ケイ(125) 翳ゲイ(259) 西セイ(210, 219) 礼レ(39)	6(7)
		齊合A	惠エ(191)	惠クエイ(158) 惠エ(166, 168, 175, 176) 慧エ(145)	4(7)
		幽韻A		酒セ(109)	1(1)
計			4(4)	16(23)	20(27)

森博達의 α群에 있어서의 エ列乙類에는 合口의 灰韻도 있으나 주로 咍韻字가 보이며, 甲類에는 祭韻A의 「弊」를 제외하고 모두 齊韻字가 다루어졌다(1991: 62-63). 上表의 백제한자음의 甲乙에도 동일한 齊韻, 咍韻字가 보이나, 支韻B의 「宜ゲ」, 侯韻一의 「部ベ」도 각각 一例씩 보인다. 이와 같은 音相은 이미 일본어학계에서 고음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β群에 α群의 음운이 덧씌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表14>와 같은 음운이 고대 백제한자음의 자료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고대 백제어에 e類音韻으로서 言語生活文化를 향유했었다는 의미가 된다. 예를 들면 이하와 같은 예이다. 번호는 論者의 자료에 의한 것이다.

45. 適莫爾解 チャクマクニゲ 人名…… 卷第15 顯宗 3年 3月條
46. 古爾解 コニゲ 人名 〃
47. 內東莫古解 ナイトウマクコゲ 人名 〃
93. 施德 セトク 官職名(8／16)……卷第19 欽明 4年(543) 12月條
178. 令開 リヤウケ 人名(僧侶)……卷第21 崇峻 元年(588)條
211. 余宜受 ヨゲズ 人名(大使)……卷第26 齊明 元年條

(이하, 생략)

그러나 일본어학계의 橋本進吉는 e列乙類에 대한 한국한자음은 원래 二重母音 ai라고 했던 것이 아닐까 하며 그 표기법으로 추정한 적이 있다. 이러한 견해는 有坂秀世, 河野六郎 등은 물론이고, 오늘날 한국어 학계에도 통설이 되어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橋本進吉는 일본 고문헌 속에 賽(sai)가 佐叡(saje)로, 佩(hai)가 波江(faje)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예를 들어 ai는 æ가 될 수 있다[15]고 하면서 그 가능성을 남겼다. 그뿐만 아니라 橋本進吉는 e列乙類 ai는 한국어에서 ɯi로도 다루어지고 있다는 예를 들면서 그 음가추정에 다양한 가능성을 試論했다. 실제로 이러한 것은 향가에 나타나고 있다.

郎也慕理尸心未 (慕竹旨郎歌)
自矣心米 (遇賊歌)
耆郎矣皃史是史藪邪 (讚耆婆郎歌)
心未際叱肹逐內良齊 (讚耆婆郎歌)
紫布岩乎過希 (獻花歌)
(이하 생략)

이러한 것은 한국어 ɯi와 æ의 상통으로 볼 수 있음은 小倉進平를 비롯해 梁柱東, 김완진 등의 해석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통이 가능한 이유는 역시 현실생활에서의 음성적인 發現에 의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河野六郎[16]와 허웅[17]을 비롯한 대부분의 한국어학자는 아래

15) 橋本進吉(1966: 234) 참조.
16) 河野六郎(1979: 224-238) 참조.

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犬>가히(ka-hi)→개(kɛ)
<猫>고양이(kojaŋi)→괭이(kwɛŋi)
<瓜>오이(oi)→외(we)
<男兒>사나이(sanai)→사내(sanɛ)
(이하 생략)

이것은 이중모음에서 단모음화로 변했다는 통설적인 견해로서 현재 이 學說은 지배적이다. 대개 그 시기는 이숭녕의 18C에서 허웅의 19C에 이르기까지 모두 근세 이후라고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논리는 한국어의 방언과 평성○+거성●=상성○●으로서 설명되는 단모음화 등을 참고할 때 충분히 이해가 되는 說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音借字와 音假名에 의한 역사적 한자음자료에서는 이와 다른 音相이 보인다. 이것은 觀智院本 類聚名義抄, 妙法蓮華經釋文, 法華經音義, 法華經音訓, 法華經釋文, 安田八幡宮藏 大般若波羅密多經 등에 보이는 일본오음자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일본서기자료에도 이하와 같은 後世에 보이는 蟹攝의 不連續音 ai와의 竝存에 근거해서이다.

哈韻一 台ダイ(258)
泰韻一 帶タイ(133), 太ダイ(165), 太ダ(179), 大ダイ(255)
灰韻合一 眛マイ(77), 昧マイ(182), 對タイ(156), 內ナイ(47)
齊韻A 帝タイ(186), 提ダイ(112), 礼ライ(113, 128)

17) 허웅(1965: 430-439)을 참조.

이것은 당대 이후의 漢音相이며 상대적으로 e류 음상은 당대 이전의 육조기를 중심으로 하는 古態音韻임은 일본 上代假名用法에 보이는 字例로서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통설에 의한 단모음화는 현대일본어에도 존재하는[18] 파롤상의 음운변천으로서, 한국의 국어부에도 보이는 음운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한자음부에서는 이미 e단모음이 旣存했다는 설과 병행해서 설명하는 것이, 한국어학에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이들 e류 음운이 만약 二重母音로 실현되었다면 『和漢三才圖繪』에 보이듯이 「매」(鷹)는 「末伊」, 개(犬)는 「加伊」 등으로, 혹은 『朝鮮館譯語』에 보이는 대로 뫼(산)는 「磨一」, 색(色)은 「世一」 등으로 표기[19]했을 것이다. 그러나 『朝鮮館譯語』에는 분명히 개(犬)는 「改」, 매(鷹)는 「埋」라고도 적고, 해(年)는 「害」, 혀(舌)는 「解」[20]라고도 적고 있다.

馬淵和夫[21]와 沼本克明에는 이들의 e류 음상이 日本上代부터 통시적인 변화를 거쳐 奈良시대에는 ケ(ゲ)만이 마지막으로 甲乙구분을 가졌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특히 沼本克明는 일본어사에 있어서 ai→e라는 보편적인 음운변화에서 벗어나는 日本上代, 혹은 일본오음자료에 보이는 e음류는 본래 외래어(외국어)였기 때문일 것이다[22]라는 견해를 남겼다.

본고를 통해 확인된 일본서기의 고대백제어에 e류 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그 외국어는 다름 아닌 백제어 혹은 古代 韓國語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18) うまい→うめ, はい→へ, こわい→こうぇ 등의 음성적 현상이다. 그러나 이들은 개개의 parole적 音像이고 사회적 규범의 langue 音像은 아니다.
19) 河野六郎(1979: 224)에서 재인용하였다.
20) 강신항(1995)와 권인한(1998)을 참조.
21) 馬淵和夫, 『國語音韻論』, p. 40.
22) 沼本克明(1997: 206-213)을 참조.

이와 같이 일본서기에 보이는 백제한자음은 β群에 속하는 e류 음과 α群에 속하는 ai 음과의 병존이 있는 까닭에 그 음운자료의 활용에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4.3. オ列甲乙

<表十五>

假名		中古音	β群	α群	計
オ列	乙	之韻B		己コ(55, 68, 81, 86, 154) 其ゴ(110) 意オ(13, 48, 209)	3(9)
		魚韻B		許コ(106, 256)	1(2)
		魚韻A		余ヨ(134, 161, 206, 211, 221, 223, 269)	1(7)
		侯韻一		母モ(256)	1(1)
		登韻一		騰ド(66)	1(1)
	甲	模韻一	古コ(1, 4, 6, 12)	慕モ(57, 114) 都ト(68) 奴ノ(97, 132) 怒ノ(222) 古コ(46, 47, 60, 74, 79, 141, 180, 225) 固コ(118) 素ソ(237)	8(20)
	기타	模韻一	布ホ(11)	菩ボ(112) 嫩ホン(243, 250) 護コ(83) 鹵ロ(31, 64)	5(7)
		魚韻B		初ソ(243)	1(1)
		微韻B		旣コ(109)	1(1)
計			2(5)	20(44)	22(49)

イ列의 백제한자음 假名에는 α群 표기자의 음운의식이 共時的으로 보였다. オ列甲類에도 模韻一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α群의 音韻特質이 보인다. 그러나 オ列乙類의 之韻B, 侯韻一의 該當例字와 「기타」의 微韻B의 例字는 모두 古音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것은 イ列의 백제한자음 假名에서 확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β群, 혹은 그 이전의 古音 위에 α群 표기자의 음운의식이 덧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 또한 일본서기에 보이는 백제한자음의 자료성과 활용에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5. 고대백제어 음운체계에 대하여

이상과 같은 수순을 통해 그 자료의 유효성이 認定된다면 아래와 같은 고대백제어의 음운체계를 역사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성모>
① 重脣, 輕脣의 無別
② 舌頭, 舌上의 無別
③ 牙, 喉音 有別
④ aspirate(氣)體系 存在
⑤ voice(聲)體系 不在
⑥ 鼻音 存在
⑦ 당시의 照母는 파열음이 아닌 파찰음 ʦ류로 나타난다.

<운모>
⑧ e類音 存在

이상과 같이 고대 백제한자음의 체계는 중기 조선은 물론이고 현대 한국한자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⑧은 그 음가추정에 있어 논의의 여지가 남아 있으나 현재로서는 일본어사의 연구결과에 따라 甲乙정도로만 분류한다. 통설에 따르면 e列甲은 前舌的이며 上昇母音인 e, e列乙類는 前舌的이며 상대적으로 下向母音인 e(ɛ, æ 등)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소위 等韻學에서 모음의 차이로 설명하는 甲乙 분류와도 통하는 것이다.

또한 o列乙類의 음가추정에 있어 大野進는 ɵ(ə의 圓脣母音)라는 연구성과[23]를 남겼다. 본고의 <表十五>에 보이는 o列乙類의 음가추정에 있어 이를 참조하는 것이 고대한국어학에 유익할 것이다.

6. 結論

일본서기의 백제한자음을 표기한 假名는 森博達의 α群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α群의 음운특징과는 다른 음운체계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것은 오히려 β群의 음운특질에 가까우며, 곳에 따라 古音으로 보이는 것도 존재한다. 聲母에 보이는 重·輕脣音의 無別象, 假名「チ」에 舌上音뿐만 아니라 舌頭音인 端母도 다루어졌다는 것, 「カ」行假名에 喉音字 h도 다루어졌다는 것, 次淸音字에 보이는 濁音假名의 존재, 全濁音에 보이는 無聲音化와 鼻音에 보이는 非鼻音化가 철저하지 않았다는 것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일본서기의 α群에 대량으로 속했던 관계로 해당표기자의 음운의식이 나타남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다. 즉 일본서기에 보이는 백제한자음은 古音, 혹은 β群의 위에 후세의 α群 표기자의 음운의식이 덧씌워진 것이다. 예를 들면 日本語史에 보이는 不連續音 e>ai로 나타나는 異體系的인 음운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과, 나아가 之韻B, 微韻B에 イ列假名와 古音에 해당하는 オ列假名가 竝存해서 다루어졌다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런 까닭에 성모·운모를 막론하고 일본서기 α·β群에 보이는 백제한자음은, 순수한 百濟語가 아닌 後世의 표기자가 가진 별개의 음운의식이 덧씌워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백제한자음을 음운자료로서 이용할 때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먼저 선별작업을 요한다.

또한 고대백제한자음은 역사적으로 일본오음의 범주에 속해 있다. 본고를 통해 백제한자음은 보편적인 일본오음과 서로 다른 음운체계를 가지고 있음이 보였다. 예를 들면 遇攝虞韻非母「夫ブ」 등의 淸音字에 대한 濁音表記, 혹은 切韻·廣韻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丁チャウ」 등

23) 大野晋(1972: 126-190)을 참조.

이다. 이것은 일본의 오음에 중국계 · 한국계 · 일본계의 3종(이상)의 음운체계가 혼입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고대한국어(자료)는 다름 아닌 일본에 있다는 것이 된다.

참고문헌

강신항(1995), 『朝鮮館譯語硏究』, 성균관대학교출판부.
橋本進吉(1951), 『國語音韻の硏究』, 岩波書店.
橋本進吉(1966), 『國語音韻史』, 岩波書店.
권인한(1998), 『朝鮮館譯語의 音韻論的 硏究』, 國語學會.
권인한(2005), 「岩崎本『日本書紀』の聲点についての一考察」, 大東文化硏究 第52輯, 317-342.
김정빈(2007), 『일본오음연구』, 책사랑.
大野晋(1972), 『上代假名遣いの硏究』, 岩波書店.
도수희(1989), 『百濟語 硏究』 Ⅰ, Ⅱ, 백제문화개발연구원.
藤堂明保(1971), 『音注韻鏡校本』, 木耳社.
藤井茂利(1969), 「日本書紀に見える朝鮮系音假名」, 『東海大學紀要』 第13輯, 26-36.
藤井茂利(1975), 「推古朝遺文の假名と朝鮮漢字音」, 『文學科論集』 第11号, 鹿兒島大學, 81-105.
藤井茂利(1976), 「万葉集の音假名と朝鮮漢字音」, 『文學科論集』,第12号, 鹿兒島大學, 77-108.
藤井茂利(1980), 「日本書紀に見える朝鮮人名表記の漢字」, 『文學科論集』 第16号, 鹿兒島大學, 1-27.
馬渕和夫(1960), 「日本語 · 音韻の歷史—上代—」, 『解釋と鑑賞』, 支文堂, 10-38.
馬渕和夫(1970), 『韻鏡校本と廣韻索引』, 嚴南堂書店.
滿田新造(1964), 『中國音韻史論考』, 武藏野書院.
木下礼二(1961), 「日本書紀に見える百濟史料の史的価値について」, 『朝鮮學報』 第21-22輯, 朝鮮學會, 673-723.
沼本克明(1986), 『日本漢字音の歷史』, 東京堂出版.
沼本克明(1997), 『日本漢字音の歷史的硏究』, 汲古書院.

柳玟和(2003), 『『日本書紀』朝鮮固有名表記字の研究』, 和泉書院.
有坂秀世(1955), 『上代音韻攷』, 三省堂.
森博達(1977), 「日本書紀に見える万葉假名の一特質」, 『文學』 45-2, 151-180.
森博達(1981), 「漢字音より觀た上代日本語の母音組織」, 『國語學』 第126輯, 國語學會, 30-42.
森博達(1982), 「平山久雄氏に答え再び日本書紀α群原音依據說を論証す」, 『國語學』 第131輯, 國語學會, 55-66.
森博達(1991), 『古代の音韻と日本書紀の成立』, 大修館書店.
坂本太郎外(1967), 『日本書紀』, 岩波書店.
平山久雄(1982), 「森博達氏の日本書紀α群原音依據說について」 『國語學』 第128輯, 國語學會, 18-27.
平山久雄(1983), 「森博達氏の日本書紀α群原音依據說について、再論」, 『國語學』 第134輯, 國語學會, 17-22.
河野六郎(1979), 『河野六郎著作集 1』, 平凡社.
허웅(1965), 『국어음운학』, 정음사.

〔405-865 인천시 남동구 만수1동 949-4 흥일빌라2-201〕
E-mail : vvv534@hanmail.net
전화 : 032-462-0237, 010-6212-2239
접수일자: 2007. 05. 22.
게재결정: 2007. 07. 27.

『日本書紀』に見える百済漢字音の研究

—その資料性と音韻体系を中心として—

金正彬

日本書紀には古代韓国語の資料が多数存在している。これは韓日間の代表学者によって公認されてきたことである。しかし、これは取捨選択による一部の音韻に限ってである。よって日本書紀に見える古代韓国語を研究資料として活用するとき、先ずはその資料性から調べてみるべきである。

本稿ではこのような日本書紀に見える古代韓国語、特に百済語を中心にしてその借用漢字音の音韻的資料性と当時の音韻体系を探ってみたものである。その観点としてはα群とβ群に説明される日本語(音韻)史と中古漢語史を、背景にした。

其の結果、日本書紀に見える百済の借用音は百済時代以後の日本書紀の編纂者の音韻意識が加わっ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た。従って優先的にその選別作業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なお、有効であると判断される音韻、その体系は現代韓国の音韻とそれほど違わないことも論じた。

このような古代韓国語の借用漢字音は歴史的に日本呉音の範疇に属するものであり、同時にそれは古代韓国語(資料)が日本に存在しているとの意味になる。

* 核心語 : 日本書紀, 百済漢字音, 日本語史, 漢語史, 音韻資料性, 音韻体系, 日本呉音.

「付錄資料表 1」

百濟漢字音의 假名 分布圖

百濟漢字音을 표기한 日本書紀의 万葉假名를 음운재료로 삼아, 中古音體制에 의해 假名와의 대응관계를 도표화한 것이다. 개별字數로 통계를 보이며, ( )는 延字數이다. 開合은 묻지 않았다. 대개 直音과 拗音으로 구별하나, AB는 平山久雄 說에 따라 각각 强口蓋音(i)과 弱口蓋音(ï&I)에 의한 重紐의 구분을 의미한다. 필요에 따라 三等, 四等全屬韻은 三, 四로 併記해서 보인다.

<唇音>

百濟假名 / 中古音		ハ行		バ行		マ行		計	
		β群	α群	β群	α群	β群	α群	β群	α群
全淸	幫	2(2)	5(5)					2(2)	5(5)
	非	1(1)	7(16)		2(4)			1(1)	9(20)
次淸	滂		1(1)						1(1)
	敷	1(1)	1(2)		1(1)			1(1)	2(3)
全濁	並	1(1)	4(14)	1(1)	3(3)			2(2)	7(17)
	奉		2(4)		2(2)				4(6)
次濁	明				1(1)	5(8)	13(37)	5(8)	14(38)
	微					3(3)	11(34)	3(3)	11(34)
計		5(5)	20(42)	1(1)	9(11)	8(11)	24(71)	14(17)	48(124)
		25(47)		10(12)		32(82)		62(141)	

<舌音>

百濟假名 / 中古音		タ行		ダ行		ナ行		計	
		β群	α群	β群	α群	β群	α群	β群	α群
全淸	端	4(4)	18(49)					4(4)	18(49)
	知	4(4)	6(8)					4(4)	6(8)

次清	透		2(2)		3(4)				5(6)
	徹								
全濁	定			1(2)	8(17)			2(3)	10(22)
	澄	3(3)	3(5)		1(1)			2(2)	2(2)
次濁	泥					2(2)	10(31)	2(2)	10(31)
	孃								
計		11(11)	29(64)	1(2)	12(22)	2(2)	10(31)	14(15)	51(118)
		40(75)		13(24)		12(33)		65(133)	

<牙音>

百濟假名 / 中古音		カ行		ガ行		計	
		β群	α群	β群	α群	β群	α群
全清	見	6(8)	16(32)			6(8)	16(32)
	見B	4(5)	9(37)		1(2)	4(5)	10(39)
	見A	1(1)				1(1)	
次清	溪						
	溪B	1(1)				1(1)	
	溪A	1(1)				1(1)	
全濁	群						
	群B	1(1)	2(2)		2(8)	1(1)	4(10)
	群A	1(4)	1(1)			1(4)	1(1)
次濁	疑				1(1)		1(1)
	疑B			2(2)	4(4)	2(2)	4(4)
	疑A				1(1)		1(1)
計		15(21)	28(72)	2(2)	9(16)	17(23)	37(88)
		43(93)		11(18)		54(111)	

<喉音>

百濟假名 / 中古音		ア行		カ行		ガ行		計	
		β群	α群	β群	α群	β群	α群	β群	α群
全清	影	1(2)	4(9)					1(2)	4(9)
	影B	2(2)	5(7)					2(2)	5(7)
	影A		1(1)						1(1)
清	曉			1(1)	2(2)			1(1)	2(2)
	曉B			2(2)	3(4)			2(2)	3(4)
	曉A								
濁	匣	1(1)	2(5)	3(3)	3(3)		1(4)	4(4)	6(12)
次清	于三		5(9)						5(9)
	喩四		7(16)						7(16)

計	4(5)	24(47)	6(6)	8(9)		1(4)	10(11)	33(60)
	28(52)		14(15)		1(4)		43(71)	

<齒音>

百濟假名 / 中古音		サ行		ザ行		タ行		計	
		β群	α群	β群	α群	β群	α群	β群	α群
全清	莊二								
	照三	7(9)	9(11)			1(1)	1(4)	8(10)	10(15)
	精	2(2)	11(25)					2(2)	11(25)
次清	初二		2(2)						2(2)
	穿三	1(1)	2(2)					1(1)	2(2)
	淸	1(1)	3(10)					1(1)	3(10)
全濁	牀二								
	神三				1(4)				1(4)
	從	1(1)	1(1)	2(3)	4(4)			3(4)	5(5)
淸	疏二	1(1)	5(19)					1(1)	5(19)
	審三		9(11)						9(11)
	心	6(6)	17(34)					6(6)	17(34)
濁	禪三	1(1)	4(4)	2(2)	10(16)	1(1)		4(4)	14(20)
	邪四								
計		20(22)	63(119)	4(5)	15(24)	2(2)	1(4)	26(29)	79(147)
		83(141)		19(29)		3(6)		105(176)	

<半舌·半齒音>

百濟假名 / 中古音		ラ行		ナ行		ザ行		計	
		β群	α群	β群	α群	β群	α群	β群	α群
次濁	來	6(9)	26(48)					6(9)	26(48)
	日			3(5)	4(10)		2(2)	3(4)	4(10)
計		6(9)	26(57)	3(5)	4(10)		2(2)	9(13)	30(58)
		32(66)		7(15)		2(2)		39(71)	

「付錄資料表 2」

日本書紀에 보이는 古代百濟語의 假名用字表

百濟漢字音을 표기한 日本書紀의 万葉假名를 음운재료로 삼아, 假名50音圖와의 대응관계를 도표화한 것이다. ( )는 필자가 작성한 자료의 일련번호이다. 開合과 等號에 따라 제시 하며, 필요에 따라 三等, 四等全屬韻은 三等, 四等으로 併記해서 보인다.

百濟假名	等号 / 開合	一等	二等	三等乙	三等甲、四等
ア	開	阿ア(16, 22, 105, 130, 189)			
イ					
ウ	開			有ウ(149, 151)	
エ	開				移エ(99)
オ	開			意オ(13, 48, 209)	

百濟假名	等号 / 開合	一等	二等	三等乙	三等甲、四等
カ	開		加カ(34, 102, 187, 230) 賣カ(180) 下カ(69)		
キ	開			技キ(22) 姬キ(123)	岐キ(102, 104, 200, 201)
	合			鬼クヰ(208, 220, 242) 貴クヰ(7, 38, 52, 62, 80, 82, 88, 117, 139, 143, 184, 185, 237) 輝クヰ(263)	季キ(153)

ク	開			俱ク(30) 久ク(2, 27, 40, 117, 121, 222, 258) 窮ク(229) 休ク(115)	
ケ	開	開ケ(178)			
	合		花クエ(16,)		
コ	開	古コ(1, 4, 6, 12, 46, 47, 60, 74, 79, 141, 180, 225) 固コ(118) 護コ(83)		己コ(55, 68, 81, 86, 154) 旣コ(109) 許コ(106, 256)	

百濟假名	等号 開合	一等	二等	三等乙	三等甲、四等
ガ	開	我ガ(50)		奇ガ(84, 98, 103, 104, 107, 108, 162)	
ギ	開			義ギ(196)	
グ	開			虞グ(267)	
ゲ	開		解ゲ(45, 46, 47, 229)	宜ゲ(211)	
ゴ	開			其ゴ(110)	

百濟假名	等号 開合	一等	二等	三等	四等
サ	開	佐サ(85, 137, 165, 189)	沙サ(78, 86, 215, 217, 249, 260)		姐サ(52)
シ	開			支(11, 19, 21, 37) 氏(123) 師(51, 173, 248) 之(192)	斯(17, 50, 97, 99, 125, 130, 132, 205, 209, 242) 資シ(5) 次(59, 97, 111, 119, 136, 154, 164) 四(244) 子(141, 142, 180, 194, 237, 250, 259, 272) 司(246) 新シ(29, 132)

	合				雖ス〃(91)
ス	開	素ス(194)		州ス(41) 首ス(169, 238)	須ス(7, 34, 253, 268)
セ	開			施セ(93) 勢セ(106)	齊セ(29) 酒セ(109)
ソ	開	素ソ(237)		初ソ(243)	卽ソ(53, 59)

百濟假名	等号 開合	一等	二等	三等乙	三等甲、四等
ジ	開				自ジ(205, 221) 慈ジ(196)
ズ	開			受ズ(211)	

仮名	等号 開合	一等	二等	三等乙	三等甲、四等
タ	開	多タ(8, 42, 48, 91, 98, 130,)			
チ	開			知チ(30, 162) 智チ(202, 231) 致チ(28, 125,)	
ツ	開	都ツ(29, 100, 248) 土ツ(273)		州ツ(3, 53, 59, 68, 236)	
ト	開	都ト(68)		直ト(21)	

百濟假名	等号 開合	一等	二等	三等	四等
ダ	開	太ダ(179, 179) 陀ダ(56, 101, 103, 149, 151, 157)			
ド	開	騰ド(66)			

百濟假名	等号 開合	一等	二等	三等	四等
ナ	開	那ナ(14, 40, 49, 63, 87, 92, 97, 99, 101, 103, 115, 122, 132, 171, 238, 268) 奈ナ(73, 131, 183)			

ニ	開			爾ニ(26, 27, 45, 46, 53, 54, 116. 160) 尼ニ(32) 仁ニ(23, 213, 266)	
ヌ	開	奴ヌ(155, 183, 162) 怒ヌ(125, 161,)		柔ヌ(198, 236)	
ノ	開	奴ノ(97, 132) 怒ノ(222)			

百濟假名	等号 開合	一等	二等	三等乙	三等甲、四等
ハ	開		巴ハ(230)		
	合	波ハ(251)			
ヒ	開			皮(121)	比(9, 92, 130, 244, 250)
	合			非(108)	
フ	開			富フ(172) 不フ(58)	
ホ	開	布ホ(11)			

百濟假名	等号 開合	一等	二等	三等乙	三等甲、四等
バ	開		馬バ(246)		
ビ	開				鼻ビ(74)
ブ	開			夫ブ(244) 父ブ(248)	
ベ	開	部ベ(140)			
ボ	開	菩ボ(112)			

百濟假名	等号 開合	一等	二等	三等乙	三等甲、四等
マ	開		麻マ(40, 49, 58, 63, 64, 78, 84, 87, 100, 107, 115, 154, 183, 186, 222)		
	合	摩マ(192) 末マ(42, 248)		万マ(231)	
ミ	開				彌ミ(3, 8, 52, 66, 78, 104, 186, 191, 217, 245)

	合			微(272) 未(179) 味(172, 192, 201)	
ム	開	慕ム(32)		武ム(36, 95, 195, 272) 牟ム(82, 84, 257)	彌ム(11)
メ	開		馬メ(95, 119, 120, 144)		
モ	開	慕モ(57, 114) 母モ(256)			

百濟假名	等号 開合	一等	二等	三等	四等
ヨ	開				余ヨ(134, 161, 206, 211, 221, 223, 269)

百濟假名	等号 開合	一等	二等	三等	四等
ラ	開	郎ラ(48)	羅ラ(5, 24, 57, 132, 159, 251, 252, 273)	刕ラ(58, 77, 87, 129, 136) り良ラ(179)	礼ラ(239)
リ	開			利リ(9, 34, 40, 53, 59, 66, 74, 222, 230, 268) 唎リ(125)	
ル	開			婁ル(68, 86) 留ル(239) 流ル(3, 13, 15)	
レ	開				礼レ(8, 39)
ロ	開	鹵ロ(31, 64)			

百濟假名	等号 開合	一等	二等	三等乙	三等甲、四等
ワ	合			王ワ(23)	
ヰ	合			威ヰ(135, 174) 尉ヰ(39)	
ヱ	合				恵ヱ(166, 168, 175, 176, 191) 慧ヱ(145)
ヲ	合			曰ヲ(137)	